





세계화는 기업들에게 유례 없는 힘과 영향력을, 수백만 명에게는 일자리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고 사람들을 보다 깊은 빈곤의 늪에 빠지게 했을 때, 기업에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가 많다.

1995년 가이아나(Guyana)에 있는 오마이 광산개발(Omai Gold Mines Ltd)이 운영하던 금광에서 댐이 붕괴되어, 가이아나 최대의 강이 오염되었고 강을 따라 생활하던 마을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여러 건의 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에는 그 금광의 대주주인 캄비오(Cambior Inc.)사를 상대로 한 퀘벡(Quebec)에서의 소송도 있었다. 그러나 그 소송은 기각되었다. 가이아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기업들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성공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들은 국가의 세수를 늘리고 이는 다시 기본 서비스 및 기타 정책들의 재정을 조달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인권을 저해 또는 침해한다. 이는 미래에 대한 통찰과 적절한 계획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고 고의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부 국가들은 자국 국민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값비싼 자원을 얻기 위해 국가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길이 거의 없다. 또한 정의를 찾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부패, 이기주의 또는 비효율적 사법 체계로 인해 좌절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생활은 위협받거나 파괴되며 주민들은 빈곤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든다.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의 오크테디(Ok Tedi) 구리 광산은 수 백만 톤

의 광산폐기물을 투기하였다. 폐기물이 하천을 오염시켰고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야기했으며 하천 근처에 사는 지역주민의 삶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 뒤 광산의 최대 소유주인 호주계 영국 기업 BHP빌톤(BHP Billiton)은 2002년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라는 합의하에 다른 회사에 지분을 양도했다.

오크 테디 광산의 경우처럼,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비롯해 인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공동체는 자신의 땅에서 강제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고, 토양오염과 공급되는 물의 오염으로 인해 전통적인 생계수단과 삶이 파괴되거나 위협받을 수도 있다.

피해 지역 공동체들은 기업활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어 불안과 박탈을 더 악화시킨다.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권이 거부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기업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을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 결과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빈곤의 굴레는 더욱 견고해지며, 교육이나 의료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나 생계를 추구할 권리에 있어 사람들이 직면하는 장애물은 더욱 단단해진다.



## 세계화: 승자와 패자

기업들은 경제적 세계화로 혜택을 보았다. 무역 규제완화, 외국투자에 대한 시장개방 및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그룹 같은 기관들이 옹호해 온 여러 시장 자유는 기업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이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규제는 거의 없었다. 너무나 빈번하게도 기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또한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국가의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행되고 있다. 많은 힘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초국적 성격과 그 운영의 법적 복잡성은 기업 책무성에 있어 특별한 과제이다.

열악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국내 규제와 기업에 대한 이중 잣대는 효과적인 국제책임 장치의 부재와 더불어 개도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침해의 결과로 고

보팔(Bhopal)의 선더 나가(Sunder Nagar)에서 물을 길고 있는 두 소년. 2004. 정부는 보팔참사로 오염된 우물을 나타내기 위해 펌프에 붉은 색 페인트를 칠했다.

통 받는 것은 주로 빈곤한 사람들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수백만까지는 아닐지라도 수 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화의 직접적 영향의 결과로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화가 빈곤감소에 미친 진정한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현재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증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의 수는 1992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다. 2008년 말 현재 9억 6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굶주리고 있다.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가 분명히 보여주듯, 빈곤 퇴치에 있어 세계화의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세계

## 사례연구: 보팔 참사

1984년 12월 2일 자정 직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톤의 독성 화학물질에서 나온 유독가스에 노출되었다. 이 화학물질은 인도 보팔(Bhopal)의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유출된 것이었다. 공장 관계자는 유출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당국에 사고를 신고했다.

사고 직후 7,000~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며칠 내에 사망했다. 또한 최소 15,000명 이상이 이후 20년간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다. 10만 명이 이상이 치료제가 거의 듣지 않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만성 질병으로 고통 받았다.

보팔 참사는 전세계를 경악시켰고 기업의 책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사는 25년이 지난 지금 다우 케미칼(Dow Chemical)사의 법인이 되었고 여전히 많은 생존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다. 보팔 참사가 발생한 사고현장은 제대로 정화된 적이 없다. 미국과 인도의 법원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고 독립적인 전면조사도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사례연구: 니제르 델타의 석유, 빈곤, 그리고 인권**

나이제리아의 니제르 델타(Niger Delta)는 대량의 석유가 매장된 곳으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3,000만 명의 주민 대다수는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니제르 델타 지역의 빈곤과 석유가 창출하는 부(富)의 대조는 "자원의 저주"의 가장 극명하고 불편한 예 가운데 하나이다.

석유산업의 혜택은 그 지역에 거의 돌아가지 않았으며 많은 주민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었다. 석유시추와 관련된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전통적인 생계수단을 파괴하였고,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분쟁을 일으켰다.

이에 저항하는 지역사회 운동가들은 폭력에 직면한다. 일례로, 1998년 5월, 일라제(Ilaje) 민족단체 소속 120명의 젊은이들이 셰브론(Chevron)의 파라베(Parabe) 석유

시추플랫폼을 점거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수도공급과 어업기반 손해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 및 기타 배상을 요구했다. 셰브론은 보안부대의 지원을 요청했고 시위가 시작된 지 3일만에, 셰브론의 경비 책임자는 경찰 및 해군 인력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났다. 두 명의 시위자, 아롤레카 이로우아누(Aroleka Irowainu)와 졸라 오궁베제(Jola Ogungbeje)가 보안부대의 발포로 사망했고 여러 다른 시위자들도 부상을 입었다.

니제르 델타 지역 주민들은 석유탐사와 생산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그러한 권리를 조직적으로 박탈당해왔다. 그들은 석유회사에 의해 인권을 침해 받았음은 물론 정부에 의해 사법제도를 이용할 권리마저 반복적으로 박탈되었다.

은행의 수정된 빈곤수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사는 14억 명의 인구, 즉 지구상의 4명 중 한 명이 하루에 1.25 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최소 1억 명의 사람들이 2008년의 식량·에너지·금융 위기로 인해 새로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에 따른 부유한 국가들의 경제적 긴축으로 인해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외국인 직접투자 속도가 감소하면서 빈곤과 기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저주**

최빈국들 중 다수는 자원이 가장 풍부한 국가들이다. 세계 최대의 광물자원국 중 12개국, 석유 부국 중 6개국이 세계은행이 분류한 "부채비율이 높은 빈곤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삶과 건강, 교육수준이 가장 낮다.

자원채취 분야의 여러 기업들이 주장하듯, 천연자원 채취에 대한 투자는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몇 십 년

간의 천연자원 채취와 그로 인해 창출된 막대한 부는 너무나 빈번하게 분쟁과 인권침해를 야기했고 빈곤을 증가시켰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저해했다.

**인권의 박탈**

기업들은 다양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거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채취산업의 경우 인권침해 주장이 특히 많다. 그러한 사업이 토지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 채취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제로 지역공동체를 이동시키기도 한다. 수자원 오염이나 남용 때문에 지역사회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채취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활동은 이미 분쟁으로 얼룩진 국가나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고의적으로 혹은 신의성실의무(Due Dilligence) 부족으로 인해, 채취회사들은 종종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든



*'기업과 인권이 처한 곤경의 근본원인은 세계화가 만들어낸 지배구조 격차에 있다... 인권과 관련해 그 격차를 어떻게 좁히고 궁극적으로는 극복하는가가 우리의 근본과제다.'*

존 러기(John Ruggie),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2008

다.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려는 부유한 기업들의 등장은 폭력과 사회적 분쟁을 증대시킨다. 이는 경제개발의 이익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이 제 몫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느낄 경우 더욱 심해진다.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내외 지역사회 간 갈등이 더 악화된다.



에콰도르의 석유생산과 관련된 환경피해에 항의하는 선주민 단체가 '텍사코 결사 반대(Texaco never again)!' 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례연구: 멕시코

1998년 3월, 물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로 멕시코의 구에레로(Guerrero) 주의 시에라 데 페타틀란(Sierra de Petatlan)과 코유카 데 카탈란(Coyuca de Catalan) 지역의 농부들이 자원 착취에 대해 한 기업을 신고하고 불법 벌목을 중단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멕시코 군은 이들 중 두 명의 농부를 구금하고 고문했으며, 이들을 게릴라 단체의 일원이라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두 농부는 마약 재배와 무기 소지라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방면되기까지 4년간 수감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과도한 벌목의 환경적 영향을 강조한 다른 운동가들도 보복과 수감을 겪었지만 아무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채취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협상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 "참여"에 대한 말 뿐인 약속과 실제 현실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한다 해도 홍보활동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빈곤한 지역 사람들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그 정보를 얻을 수조차 없다.

### 여성 - 이중 위험

자원채취산업으로부터 여성이 받는 영향은 배제와 인권침해이다. 기업들이 채취 사업과 관련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려 할 때 여성들은 그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은 마을에 남성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 약물남용, 성폭력, 성병 및 기타 질병 증가와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이는 기존의 보건 및 기타 사회서비스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 선주민 - 동의 없는 결정

채취 사업과 다른 개발 사업은 선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서부 캐나다에서 루비콘 크리(Lubicon Cree) 족이 직면한 상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루비콘족의 전통적 영역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알버타(Alberta) 주로, 석유와 가스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천이 되었다. 1970년대 알버타의 오일 붐이 시작되었을 때, 루비콘 부족은 거의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뗏을 이용한 사냥으로 적당히 수입이 있었고 숲과 물은 루비콘 족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다. 이 지역에서 대규모 석유 및 가스 개발이 시작되면 야생동물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는 곧 사냥과 뗏을 통한 포획, 고기잡이, 식량과 약용식물의 채집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졌다. 전통경제의 붕괴로 인해 연방정부의 복지지원금에 의존하는 루비콘

족의 비율이 석유 개발 시작 4년 만에 10%에서 90%로 급증했다. 2007년,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루비콘 족이 거주지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토지를 빼앗기고 있고 그 지역은 오염되고 있다."고 밝혔다

### 빈곤과 민영화



© Dr. Tedd White CMCA Review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인권을 편입시키는 것은 정부, NGO, 노조 및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는 진보적 기업의 계몽된 이기심에 있다.

인권에 대한 기업 지도자 이니셔티브(Business Leaders Initiative on Human Rights)



© Amnesty International

### 정보의 공유와 우선적이고 자발적 동의 원칙

자유롭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은 선주민들이 그들의 권리와 이해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의사 결정과 계획, 이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의 동의는 강압 없이 이뤄져야 한다.

동의를 얻는 과정은 모든 관련자가 그 과정에 대해 알고 정보를 획득하며 논의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모든 관련 정보는 지역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동의는 참여한 선주민의 의사결정 구조를 따르면서 명백히 민주적이어야 한다.

자유롭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은 '선주민 그 밖의 부족민에 관한 ILO조약'과 '유엔의 선주민 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도 제시되어 있다.

맨 위: 파푸아 뉴기니 타부빌(Tavubil) 인근의 오크 테디(Ok Tedi) 구리광산. 수백만 톤의 광산 폐기물이 강에 버려져 엄청난 환경재앙을 야기했다.

Cree 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파괴했다.

위: 유정에 가려진 루비콘(Lubicon) 뒷산양꾼의 버려진 오두막, 2008.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개발은 서부 캐나다의 루비콘 크리(Lubicon

표지 사진: 니제르 델타(Niger Delta)의 석유 탐사로 불타오르는 가스불꽃, 2008년 2월. 이 지역의 석유산업은 많은 주민들을 빈곤으로 내몰았다.

경제적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각국은 여러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했다. 여기에는 교육, 건강, 물에 대한 권리 같은 인권의 실현에 핵심적인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민영화 과정은 이러한 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국제구호단체 액션에이드(Action Aid)는 2004년 탄자니아의 다레스 살람(Dar es Salaam) 지역의 민영화 된 수도 서비스가 가난한 지역에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수도가 제공되던 지역에서는 공급이나 품질의 개선 없이 비용만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각 국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감시를 점점 약화시켜 왔다. 민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감독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 규제완화는 이미 소외된 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환경을 조성했다. 슬럼 주민들은 트럭으로 배달되는 안전하지 못한 물을 이용하면 수도 파이프를 통해 직접 공급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부유층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영리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 저소득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 만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리 기업은 이러한 지역사회에 지나치게 과도하고 차별적이며 포악한 관행을 행할 수도 있다.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다 해도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시킬 의무까지 민영화 계약에 넘겨버릴 수는 없다. 국가는 물과 안보 또는 다른 국가 기능을 민영화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모든 공공 서비스계약에 민간 기업들이 인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하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민영화를 위해 인권이 희생될 필요는 없다. 더욱이, 인권실현과 관련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러한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국가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가 국가로 하여금 인권보장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 정의의 추구

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빈곤 계층법적권강화 위원회는 전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의미 있는 수준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가가 효과적인 사법체계를 세우고 유지하지 못하면 법치가 훼손되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 받게 된다.

2008년 12월, 유엔 총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중요한 진전이다. 자국에서 사법제도를 통해 정의를 구현할 수 없는 이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국제적인 구조를 정립하였기 때문이다.

## 보호받는 미래

경제적 세계화 덕분에 기업들은 새로운 영역에 대해 전례 없는 접근이 가능했고, 국경을 초월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국적 규제를 포함해 인권존중을 위한 기업규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모든 기업들은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효과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효과적인 규제가 되려면 적절한 조사와 제재,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

오른쪽: 가스 화염, 니제르 델타(Niger Delta). 지역사회는 가스화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

■ 기업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켜 기업 책무성을 강화하라.

국가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책임지도록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더 강력한 법과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조사, 기업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국가간의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업활동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 당한 이들이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기업활동으로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은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능할 경우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도 사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국가와 기업은 기업활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개개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www.amnesty.or.kr/dignity](http://www.amnesty.or.kr/dignity)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전세계 150여 개국 220만 명 회원이 인권보호를 위해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 빈곤감소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www.amnesty.or.kr](http://www.amnesty.or.kr)

원문 언어: 영어  
원문 발행: 2009년 5월  
번역본 발행: 2010년 9월  
문서번호:  
ACT35/006/2009